

민주노동당 지도부 초청 만찬

크게 봐서 우리당 지지하는 사람들과 민노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니 참 감개무량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개혁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개혁하는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하기는 어렵고, 여러분들이 개혁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다 동의하기도 어렵지만 크게 봐서 우리당 지지하는 사람들과 민노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폭넓은 합의가 가능합니다. 개혁은 협력하는 가운데 잘 이뤄져 갈 것입니다. 개혁한 게 없다고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개혁한 게 제법 있습니다. 그것보다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인데, 법은 국회가 아시듯이 그렇고. 제자리도 까딱하면 떨어날 뻔 했는데, 국회 개혁은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도만으로 말할 수 없는 정치문화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세가 형성되고 마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혁이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관행과 문화

를 바꿔나가고 개혁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법을 몇 개 바꿨느냐 평가하기 보다는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세가 형성되고 마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임기의 1년이 지나고 국민들이 참여해 민노당이 하고 싶은 개혁을 상당히 할 수 있는 정치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하셔서 그런데 아파트 원가공개 문제에 대해 말했는데, 포괄적으로 주택공사의 사업은 결과가 공개되고 철저히 감사받고 기획예산처의 평가도 받습니다. 특별하게 부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가격을 가지고 주택사업에서 돈 좀 남겼다고 부당하게 쓰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의 여건으로 남는 곳이 있고, 밀지는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임대주택사업은 무조건 밀지는 것입니다. 사업에서 남는 부분은 다 공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적어도 주택공사가 사업자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한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내가 일상적으로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압력이나, 건설업계의 압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당은 내 생각을 모르고, 또 내가 정책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공약했는데, 다시 상의를 합시다.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입니다.

결론이 어디로 나더라도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입니다. 대통령의 소신을 우리당에서 미처 확인하지 않고 공약했다가 차질이 생겼으니, 내용 잘못은 견해차이가 있지만, 개혁 후퇴의 상징적 사건으로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용의 옳고 그름은 앞으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대화와 토론이 필요합니다. 과거 토론 없이 결론이 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또 한 번 결론나면 토론해도 바뀌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어떤 당의 정책도 토론과 타협의 과정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절충됩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정책을 바터하기도 합니다. 민노당도 이런 것을 용납해주시면, 아파트 공개원가 문제도 토론과 타협을 하면 민노당의 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봅니다.